

# 페퍼스도 못 피한 코로나...여자배구 포스트시즌 취소 위기

### 페퍼스 1명 확진에 주전들 줄부상 악재...최소 엔트리 12명 아슬아슬 현대건설·GS칼텍스 이어 인삼공사 6명 확진...리그 재개 16일로 연기 리그 중단 기간 22일 달해...24일 이상 중단 팬 포스트시즌 개최 무산

광주 페퍼즈축은 여자배구단 AI페퍼스도 '코로나 마수'를 피하지 못했다. AI페퍼스는 주요 선수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다른 선수들은 8일 PCR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여자프로배구 전체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 GS칼텍스에 이어 KGC인삼공사에서도 7일 선수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까지 AI페퍼스 선수들은 전원 음성이었으나, 이후 선수 1명이 인후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 선수는 7일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뜩이나 '선수 부족'으로 몸살을 앓던 AI페퍼스는 확진자 발생으로 선수 운용 한계에 다다랐다. 박은서는 왼쪽 발목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지민경은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

이며, 문승기도 왼쪽 새끼발가락 복합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확진 선수 1명이 추가돼 정원 16명 중 최소 엔트리인 12명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다.

경기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I페퍼스는 지난 3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인삼공사전을 가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연습 및 훈련을 하지 못했다.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기 일정도 선수들에겐 독이다. 다른 구단보다 선수 숫자가 턱없이 적은 AI페퍼스는 주전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출전하면서 피로 누적으로 줄부상을 입고 있다.

더구나 AI페퍼스 선수들 중에는 이전 시즌에서 주전으로 골세트를 소화해 본 선수가 없다. 시즌이 늘어지는 만큼 연습 기간이 늘고, 체력과 정신력을 더 많이 소모하면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선수 보호가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다. 불안해하면서 선수원 방에 갇혀 연습조차 못하고 있는데, 좋은 경기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장 경기는 미뤄졌더라도 9일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고 조금씩 연습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6일 시즌을 중단한 데 이어 인삼공사의 추가 감염으로 재개일을 오는 14일에서 16일로 연기했다.

연맹이 발표한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르면 4~6라운드에 정규리그를 중단할 경우, 중단 기간이 14~23일이면 정규리그 수는 유지하되 포스트시즌을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 단판, 챔피언결정전 3전 2승제로 각각 축소한다.

24~28일간 중단되면 6라운드 정규시즌을 종료하고 포스트시즌은 열지 않는다. 리그 중단이 28일을 넘어가면 리그를 조기에 종료한다.

여자프로배구는 지난달에도 코로나19 여파로 12~20일 리그 운영을 멈췄다. 이번 시즌 리그 중단 누적 기간은 22일이다. 중단 기간이 지금보다 이틀만 더 늘어나면 24일이 돼 정규리그만으로도 시즌을 끝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휠체어컬링 기선 제압 투구 휠체어컬링 대표팀 '장운정고백'의 백해진이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립아쿠아티컬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예선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신중하게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핀수영 전국선수권 계영 단체전 우승

### 여고부 금 2·은 1·동 3 획득

광주체고 핀수영이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최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0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광주체고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대회에서 첫 출발부터 선전해 전국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양현지(2년)는 표면 50m에서 19초60으로 김희주(충남체고, 19초66)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현지는 지난해 열린 전국체육대회 여자 19세이하부 표면 100m, 표면 50m에서 금메달을 따낸 표면 50m 최강자다.

광주체고는 400m 계영에서도 3분00초31로 3분03.51을 찍은 경기체고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홍수진(1년)은 표면 200m, 이세은(2년)은 짝핀 5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김정훈은(3년)은 남고부 짝핀 50m에서 3위에



광주체고 수영 선수들.

올랐다. 광주체고 흥해선 지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수들이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면서 "양현지를 비롯해 주축 선수들의 기량이 여전한 점도 긍정

적"이라고 말했다.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 같은 모노핀이나 오리발 같은 짝핀을 신고 규정된 거리를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 동계체전 최고 성적, 숨은 조력 있었다

###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지원 성과 근육 피로 완화·심리 안정 도움 선수들 최상 경기력 발휘 밑거름

동계 스포츠 불모지 전남이 103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등 총 32개(산악시범 종목포함)의 메달을 쓸어들었다.

바이애슬론팀은 금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따내 전남이 종합순위 7위에 오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남의 동계 체전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이다.

바이애슬론의 선전에는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일원에 캠프를 차리고 바이애슬론선수단을 집중 지원했다. 근육 마사지와 테이핑 기법으로 훈련으로 인한 근육 피로를 완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했다.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지 않도록 심리 지원에도 나섰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근육피로에 대한 대처

였다. 바이애슬론 종목은 엄청난 체력소모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많이 쌓인다. 종목 특성상 선수들의 피로관리가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산소 처치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체내 산소포화도를 증가시켜 선수들의 피로 및 근육회복 속도를 한층 높였다.

스포츠과학 연구소의 지원은 결실을 맺었다. 바이애슬론팀이 제103회 동계체전에서 메달을 싹쓸이 한 것이다.

티모페이 랍신과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석정 마크셔밋)는 각각 4관왕, 3관왕에 올랐다. 랍신은 스피리트 10km, 집단출발 15km, 22.5km 계주, 혼성계주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예카테리나는 스피리트 7.5km, 집단출발 12.5k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는 주요 경기마다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전남wfc, 제102회 전국체전에서도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김태완 센터장은 "현장지원을 통해 전남도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더 많은 종목, 선수들에게 현장지원을 통해 전남체육에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젊은 황제' 듀플랜티스, 실내 장대높이뛰기 6m19 '세계신'

'젊은 황제' 아먼드 듀플랜티스(23·스웨덴)가 자신이 보유한 실내육상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듀플랜티스는 8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장대높이뛰기 남자부 경기에서 6m19를 날아올랐다. 자신이 2020년 2월 16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작성한 6m18을 1cm 높인 세계신기록이다. 이날 듀플랜티스는 5m61, 5m85, 6m00을 모두 1차 시기에 넘겼다. 6m19로 바를 높은 듀플랜티스는 1, 2차 시기는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서는 성공했다. 그의 무릎이 바를 살짝 건드렸지만, 바가 떨어지지 않았다. 듀플랜티스는 하늘을 향해 펀치를 날리며 포효했다.

듀플랜티스는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육상 선수로 꼽힌다. 듀플랜티스는 미국 장대높이뛰기 선수였던 아버지 그레그 듀플랜티스와 육상 7종경기·배구 선수로 뛰었던 스웨덴 출신 어머니 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듀플랜티스의 형 안드레아스도 장대높이뛰기 선수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6m02를 넘어 우승하며 '첫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차지한 듀플랜티스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따라 스웨덴 국적을 택했다. 7세 때 이미 3m86을 뛰어 '장대높이뛰기 신동'이라고 불린 듀플랜티스는 2018년 유럽육상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20세 이하) 세계기록인 6m05를 넘어며 우승, '신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듀플랜티스가 실내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을 경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배트맨
- 2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3관 언차티드
- 4관 더 배트맨
- 5관 더 배트맨, 블랙라이트
- 6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7관 씨네케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안테벨룸  
극장판 추쇄회전 0, 블랙라이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8관 씨네케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GAC기획공연 포커스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시즌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